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17번째 편지

교육관서 6시간 계속된 중재노력 당회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산

지난 4월2일 토요일 오전 10부터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채홍인, 박환 장로 등 5명의 당회 측과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반대세력인 정통성회복위원회(정통위) 간의 중재모임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시도된 이날 중재 모임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명예교수인 김찬희 박사(목사)가 중재관으로 임명돼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날의 중재 노력을 깨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중재를 깬 쪽은 바로 당회 측이었습니다.

이날 중재에 당회 측에서는 채홍인, 이영세 시무 장로와 노수정 은퇴 장로가 대표로 나왔으며 칼 손변호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정통회 측에서는 정영식장로와 김광찬 집사 그리고 김해룡 집사와 카메론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원래 중재는 양측이 각각 원하는 안을 내 놓고 그 안을 토대로 줄다리기를 협상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날 당회 측은 자기들이 원하는 안을 내 놓은 뒤 우리 측의 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그 안을 고수하는 바람에 중재는 6시간이나 계속됐지만 아무 타협 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당회측이 이날 주장했던 소위 타협안은 이렇습니다.

- 1) 그들과 똑 같은 당회원이었던 정영식, 안광석 장로의 당회복귀는 절대 안된다.
- 2) 당회의 반대세력인 18명의 복권은 무 제직으로 1년 동안 교회에 출석 한 뒤 정상을 참작해서 선별적으로 복권, 복직한다.
- 3) 현 당회원은 6명(이세훈 장로는 사퇴가 아니라 휴가 중이라고 주장)이며 피택된 최형수, 엄창웅, 이효성, 이승래 집사 등 4명과 12명의 정원가운데 공석 중인 2명을 조만간 다시 투표로 선출할 텐데 이들 12명의 당회원을 인정하라. 2명의 선출자 중에는 반대세력인 18명은 제외된다.

참으로 한심스런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날 당회가 내세운 안은 타협이 아니라 무조건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타협해서 교회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망해도 너희들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정, 안장로는 동지였는데 반대세력 구실로 쫓아내

현직 당회원 징계, 퇴출은 헌법에도 없는 불법중의 불법

우선 당회가 주장하는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영식, 안광석 장로님은 시작부터 현 당 회원들과 한편이 돼서 강준민 목사와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 년 동안 싸우면서 승리를 함께 했던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그들과 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 헌법에도 없는 1년과 6개월씩 당회원 자격 정지를 결정하더니 나중에는 교인자격 정지 그리고 소송을 통해 긴급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이번에는 일반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순수하게 이 재판을 위해 고용했던 데이빗 김 변호사가 별스런 진전을 보이지 않자 무려 10여 만 달러의 변호사 비를 주고 손을 떼도록 하는 한편 칼 손변호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교회 헌법 어디에도 당회가 현직 당회원인 장로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당회원인 장로를 쫓아내는 경우는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로 불법에 불법을 더 한 것입니다.

“정, 안장로 복귀만이라도 하자” 중재관의 타협안도 거절

2명 들어오면 그간의 잘못 줄줄이 들어날까봐 수락 안해

이런 이유로 중재를 맡았던 김찬희 박사는 다른 것은 그만 두고 정영식, 안광석 장로를 당회에 복귀토록 하자는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한 마지막 길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채홍인, 이영세 시무 장로와 노수정 은퇴 장로는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왜 당회 대표들은 이들 2명의 장로들의 당회복귀를 극구 반대했을까?. 답변은 간단합니다. 2명이 당회에 들어 갈 경우, 그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이 줄줄이 드러날 것이며 그들의 정당한 논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변의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무서워서 5명이 2명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당회가 주장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회는 2명의 시무 장로를 포함해서 18명의 교인들을 쫓아 내기위해서 긴급 접근금지명령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거절하자 막대한 변호사 비를 들여가면서 일반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재판에서 당회가 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사건은 패소한다는 것이 법원가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채홍인, 이영세 시무장로와 노수정 은퇴장로는 타협의 여지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회원들은 18명이 백기를 들고 투항해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는 짓”을 보고 그에 따라 심사를 해서 통과된 사람은 복권을 시켜주겠다고 그들의 맘에 맞지 않으면 1년 뒤에도 복권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방식은 “저 자식 하는 것 봐서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버려라”는 시골 깡패들이나 하는 수법입니다.

소송도 취하하고 징계도 풀어 진정한 타협 이루자

개인감정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살리자도 거절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교회 전체를 위한 화합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징계도 풀어 진정한 타협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홍인, 이영세 시무 장로와 노수정 은퇴 장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그들 나름의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지건 말건 소송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며 교회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정통회 회원들은 절대로 같은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그분들의 불법성을 용서하면서 사랑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교회, 즉 동양선교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 하나의 감정이나 주장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타협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마저 깨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회가 주장하는 3번째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당회 쪽에서 선출한 4명과 우리 측에서 선출한 6명을 모두 서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서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회의에서 공정하게 다시 선출하자. 그리고 4명과 6명의 숫자가 공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2명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출했었습니다. 물론 채홍인, 이영세 시무장로와 노수정 은퇴 장로는 이 타협안을 한마디로 거부했습니다. 거기에서 5월경에 다시 2명을 더 피택해서 2달 뒤인 7월 창립기념일에 장립할 계획인데 그 2명도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 타협을 하자는 것인지 아닌지, 또 법을 지키려는지 아니면 일부러 어기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멋대로 선출하고 아무 때나 장립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피택장로 장로장립식 한다

구두 광고도 않은 채 슬쩍 후보에 삽입

.중재 모임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허탈한 상태에 있을 때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 5명의 장로들은 마치 때를 만난 듯 바로 당회를 열고 전격적으로 소위 그들이 선택한 4명의 안수집사를 장로로 임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지난 4월 10일 후보 알리는 말씀 란에 24일 부활절에 피택 장로 장립식을 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동안 부활절이라는 알림은 있었지만 장로 장립식에 관해서는 한 줄도 없다가 지난주에 슬며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물론 박인호, 구자민 등 어느 부목사님도 이 중요한(?) 사항을 직접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장로장립식이 교회 행사중에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그런데 교인들 몰래 슬쩍 넘어가기로 당회와 두 분 부목사님들이 흔한 말로 "짜고 친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유인물을 통해 교인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이에 동조하는 분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서명자 중에는 임동선 원로목사를 비롯해서 10여명의 원로장로님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은 최근 당회가 준비 중인 피택장로 임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당회와 교인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전합니다.

첫째, 엄창웅, 최형수, 이효성, 이승래 집사 등 4명의 피택장로를 선출한 지난해 12월 26일에 열린 공동회의는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날 공동회의를 1, 2, 3, 4, 5, 부로 나누어 개회함으로서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1차, 2차, 3차, 4차 등 각각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 마지막에 그 것도 찬성 00표, 반대 00표 등 분명한 개표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4명 모두 통과됐다”는 식의 발표를 함으로서 회의 진행과 투, 개표과정 등이 일반 회의진행법은 물론이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심히 부끄러운 공동회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으로, 그 결과인 피택장로 선출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둘째, 현 당회는 부활 주일인 오는 4월24일 주일에 4명의 피택장로들의 임직식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 헌법을 위반한 불법 임직으로 마땅히 중단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 헌법 52조 장로의 임직 조항은 “투표에서 피선된 자는 6개월 이상 당회가 정한 교양 교육을 받고 고시를 시취 한 다음 선교연합회의 소정 절차에 따라 안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불법이지만 지난 12월 26일에 피선 됐으므로 이제 4개월도 안됐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6개월이 지난 뒤인 7월의 교회 창립기념 예배 때 임직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임직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교회는 담임목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에는 담임목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직식은 당연히 담임목사가 있을 때 한다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 청빙 후에 임직식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히 연기돼야 합니다.

넷째, 현 당회는 그들의 반대세력인 18명의 교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공동총회의 불법성과 현 당회원들의 자격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소송입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들 4명의 선출 자체가 무효 될 수도 있습니다. 임직한 뒤 법원판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수모를 당하는 것 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는 불법으로 선출된 엄창웅, 최형수, 이효성, 이승래 피택장로의 임직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회원도 아닌 은퇴장로가 협상 죄지우지 “인신공격 했다” 개인감정 내세워 중재 깨버려

중재가 끝난 그 다음날 노수정 장로가 몇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재를 하자는 놈들이 인신공격을 했다”면서 정통회 회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노장로의 얘기가 무슨 의미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연이 지난번 16번째 편지의 노수정 장로에 관한 내용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수정 장로는 초창기 우리 교회의 자동차 수리와 교회 수리 등에서 수많은 잡음을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특히 제2 주차장의 흙을 퍼낼 때 유령회사를 만들고 트럭 수를 늘려서 부당하게 교회 돈을 받아 갔다가 책계싱하는 현장에서 적발돼 이를 적발했던 교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살려 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일은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5명의 소위 시무장로들은 교회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이 사실을 모르고 노수정 장로에게 이 같은 일을 맡겼지만 이를 잘 아는 교인들은 “여우에게 고기를 지키도록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노수정 장로는 화가 났고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중재가 무산 된 그 다음날 한 집사님이 다른 시무장로들에게 그들이 제시했던 소위 3개의 타협안에 관해 얘기를 했는데 한결같이 다른 장로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시무장로도 아닌 노수정 장로가 협상대표에 끼어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수정 장로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가 인신공격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에게 흘리지 말고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자신있게 천명해주길 바랍니다.

노수정 장로 20여년 동안 현금, 840불, 장주영목사 귀뜸 “성경 어디에 십일조 하라고 했냐?” 주위사람들 말문 막혀

강준민 목사와 소송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재정국장이었던 장주영 목사가 우리 쪽에 슬쩍 흘린 역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수정 장로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 교회에 낸 현금 총액이 840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한 집사님이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노장로님은 십일조도 안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때 노장로는 인상을 쓰면서 “성경 어디에 십일조하라는 구절이 있냐? 헌금은 자진해서 능력에 따라 내는 거야”라고 소리쳐 주변에 있었던 10여명의 교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주동안 실시했던 교회회복 특별헌금 230여명의 명단에 노수정 장로 이름도 없어

교회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박환, 채흥인 등 5명의 장로들은 “교회회복 특별헌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난 몇 주 동안 교인들에게 헌금해 줄 것을 광고하고 또 예배 때마다 영상을 통해 강조해왔습니다. 2주 동안의 캠페인 이었는데 지난 3주 동안에 중복된 사

람을 빼면 대략 230여명이 헌금을 했습니다. 혼자사시는 권사님들이 많아 대체로 보면 800여명의 전체 교인들 가운데 대략 2분의 1정도의 교인들이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수정 장로는 지난 몇 주 동안 떠들썩하게 실시했던 교회 회복 특별헌금도 하지 않았습
니다.

**장로 장립된지 30여년, 단 한차례 대표기도 한 일없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장로,**

노수정 장로는 1982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됐습니다. 그 이래로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예배시간에 대표기도를 한 일이 없습니다. 대예배는 그만 두고 교회에서 것처럼 흔하게 열렸던 각종 집회 그 중에서도 몇 명 안되는 소규모의 집회, 심지어 소속된 구역 예배에서도 기도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몇 명이 앉아 식사할 때도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대예배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외식보다는 골방에서의 기도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예배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장로라는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장로가 어떻게 교회에서 머리를 들고 다니느냐는 것이 노수정 장로의 그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동양선교교회 회복 대책위원회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website www.klifeusa.com. At the top, there is a banner with the text "코리아 라이프 Korean Life" and the URL "http://klifeusa.com". Below the banner is a navigation menu with the following items: HOME, 뉴스/연문/역사, 칼럼, 건강생활, 종교생활, 문예마당, and 동양선교교회 자유게시판.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the following text: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www.klifeusa.com 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동양선교교회의 최근 소식 등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도 그 안에 기록돼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 사회의 뉴스와 문학인들을 위한 "문예 마당" 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나 수필, 단편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www.klifeusa.com 입니다.